

고1·고2 저장답률 100문항 · 3단계 실전

빈순삽함 실전 100

대의파악 · 빈칸 · 함의 · 순서 · 삽입 — 전 문항 학평 기출
실제 정답률 15~79% 저장답률 선별 · 아주 친절한 해설



고1·고2 | 실전편 본책

이론편에서 익힌 단서의 눈으로 저장답률 기출을 뚫는다

빈순삽함 실전 100

고1·고2 저장답률 100문항 · 대의파악 / 빈칸 · 함의 / 순서 · 삽입
본책

초판 1쇄 발행	2026년 7월 9일
초판 2쇄 발행	2026년 7월 24일
지은이	정성봉
기획·편집	코드유니버스 · 한땀한땀
펴낸이	정성봉
펴낸곳	제이앤유아카데미
주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검단로 836
전화 · 전자우편	010-2782-0745 · code_of_english@naver.com
출판등록	356-2025-000052
ISBN	979-11-220305-3-2 (53740)

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와 펴낸곳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에 실린 지문은 고1·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이며, 함께 표기한 정답률은 실제 데이터입니다.

본문 서체는 Pretendard(SIL Open Font License 1.1)를 사용했습니다.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목 차

STEP 1 · 대의파악

대의파악의 이론 — 글을 읽는다는 것	4
실전 24문항 (대의파악 1~24)	10

STEP 2 · 빈칸 · 함의

브리지 — 빈칸·함의의 단서 체계	35
실전 24문항 (빈칸 1~24)	36
실전 12문항 (함의 1~12)	60

STEP 3 · 순서 · 삽입

브리지 — 순서·삽입의 고리 체계	73
실전 20문항 (순서 1~20)	74
실전 20문항 (삽입 1~20)	94

· 전 100문항 고1·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 정답률은 실제 데이터입니다.
· 해설은 별책 『정답과 해설』에 문항 번호 그대로 대응합니다.

STEP 1

대의파악

주제·제목·요지·주장 — 주제축 A



글을 읽는다는 것

빈순삽함의 **프리퀄** — 문제가 되기 전, 글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빈칸·순서·삽입·함의는 **완성된 글**을 공격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공격받는 그 글은, 원래 한 사람이 **단 한 마디**를 하려고

쓴 완결된 글이었다. 그 한 마디를 읽어내는 법 —

그것이 대의파악이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프리퀼 · 하나

문제가 되기 전, 글이 있었다

빈순삽함을 펼치면, 당신은 이미 **상처 입은 글**을 만난다. 한 문장이 빈칸으로 도려내어져 있고(빈칸), 순서가 뒤엎겨 있고(순서), 한 문장이 통째로 빠져 있고(삽입), 어떤 표현엔 밑줄이 그어져 있다(함의). 출제자의 칼이 지나간 뒤의 글이다.

그런데 그 칼이 닿기 전, 그 글은 멀쩡했다. 어느 필자가 책상 앞에 앉아, 하고 싶은 말 **한 가지**를 정하고, 그 말을 세상에 납득시키려고 문장을 하나씩 쌓아 올린 완결된 글이었다. 출제자는 그 완성품을 가져다 도려내고, 섞고, 빼내고, 가렸을 뿐이다.

빈순삽함이 '망가진 글'의 이야기라면, 대의파악은 그 글이 온전했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러니 모든 빈순삽함 문제의 밑바닥에는 언제나 **원본**이 깔려 있다. 그리고 그 원본을 읽어내는 능력 — 필자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알아보는 눈 — 이 없으면, 도려낸 빈칸도 뒤엎긴 순서도 끝내 복원할 수 없다. 대의파악이 흔들리면 나머지 넷이 함께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필자가 글을 짓는 장면을 한번 들여다보자. 어느 필자가 **"다수가 옳다고 믿는 것이 늘 옳지는 않다"**는 한 마디를 하고 싶다고 하자. 그는 곧장 그 말을 던지지 않는다. 먼저 독자가 고개를 끄덕일 통념을 세운다 — "사람들은 다수 속에서 안전을 찾는다." 그리고 조용히 칼을 뽑는다 — **"그러나(yet),**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 믿었던 것도 다수였다." 코페르니쿠스, 소독법의 리스터, 여성 참정권... 반례가 쌓이고, 마지막에 필자의 한 마디가 착지한다 — **"수용과 지성은 별개다."**

출제자는 바로 이 착지점, **필자의 한 마디를 빈칸으로 도려낸다.** 왜? 거기가 글의 심장이고, 주변 모든 문장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의파악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 빈칸은 이미 뚫려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프리퀼 · 둘

우리가 찾는 단 하나, A

그래서 글을 읽기 전, 우리는 한 가지를 믿고 시작한다. **이 글에는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단 하나 있다.** 그것을 **주제축 A**라 부르자.

글은 밤하늘의 별자리와 같다. 스무 개의 별(문장)이 흩어져 있어도, 그것들은 무작위가 아니다. **하나의 그림(A)**을 그리려고 놓인 것이다. 별 하나하나를 따로 보면 그저 점이지만, 선을 이으면 형상이 드러난다. 대의파악은 그 선을 잇는 일이다.

그러면 문장들은 A와 어떻게 이어지는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세우기 첫 문장이나 도입이 A를 **내놓는다**. "교과 통합엔 공통 언어가 필요하다"처럼, 글의 깃발을 처음부터 꽂는다.

꾸미기 예시·부연·재진술이 A를 **펼친다**. "글쓰기에서도, 미술에서도 같은 용어를 쓰면..." A를 다른 옷으로 갈아입혀 되풀이한다.

뒤집기 통념(B)을 세웠다가 **꺾어** A를 세운다. "다들 그렇게 믿지만, 그러나..." 반전 뒤에 진짜 A가 온다.

문장은 저마다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한 마디(A)를 위해 복무한다.

그러니 우리가 읽는 내내 던지는 질문은 둘뿐이다. **첫째, A는 어디서 세워지는가(위치).** **둘째, 나머지 문장은 A를 꾸미는가, 뒤집는가(흐름).** 다음 장에서 그 '흐름'을 읽는 두 개의 축을 손에 쥘다. 이 두 축이 서면, 어떤 낯선 글을 만나도 골격이 먼저 보인다.

흐름을 읽다 · 첫 번째 장

글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A와 나머지 문장의 관계를 읽는 데는 **두 개의 질문**이면 충분하다. 이 두 질문의 답이 글의 흐름 전체를 결정한다.

질문 1 순방향인가, 역방향인가?

글이 A를 향해 **곧장 나아가는가**(순방향), 아니면 엉뚱한 데서 출발해 **뒤집으며** A에 닿는가(역방향)?

순방향 · 주제를 먼저 내놓거나(두괄), 사례를 쌓아 결론으로 모은다(미괄). 흐름과 주제가 같은 방향이라 조용히 흐른다. 신호어가 없어도 첫 문장·마지막 문장이 A를 붙든다.

역방향 · 먼저 **통념**(누구나 믿는 말, B)을 세우고 **however·but·yet**으로 뒤집는다. 반전 뒤가 진짜 주제(A). 역방향 글은 반전 앞의 통념을 주제로 착각하게 만드는 함정이 가장 크다.

읽는 법 · "긍정적 상상은 마음을 편하게 한다"로 시작하는 글은 순해 보이지만, **But**이 등장하는 순간 그 앞은 통째로 **버릴 통념**이 된다. 역방향의 신호를 놓치면 정반대를 고른다.

질문 2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A와 이어지는 문장이 A를 **되풀이하는가**(같은 말), A와 **맞서는가**(다른 말)?

같은 말 · 재진술·요약·예시. *in other words, for example, that is*. 주제와 나머지가 **한 편**이라, 어느 문장을 잡아도 결국 같은 A를 가리킨다.

다른 말 · 대조·반박. *but, however, in contrast*. 통념과 주제가 **맞선다**. '다른 말'로 등장한 쪽은 버릴 통념(B), 주제는 그 반대편(A)이다.

두 질문의 답이 만나 — 세 가지 흐름

두 축의 답	흐름	A의 자리 · 신호
순방향 · 같은 말	A → A'	주제 → 예시·재진술 · 첫 문장(두괄) · for example, that is
순방향 · 모아서	S → G	사례(S) → 종합(G) · 마지막 결론 · thus, therefore
역방향 · 다른 말	B → A	통념(B) → 반박 → 주제(A) · 역접 뒤 · but, however

흐름을 읽다 · 실제 글에서

세 흐름이 글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이론은 실제 지문에서 확인될 때 비로소 무기가 된다. 저정답률 기출 셋으로 세 흐름을 눈에 새겨 두자.

A → A' · 순방향·같은 말

2023 고2 · 정답률 35%

"Education must focus on the trunk of the tree of knowledge..."

A(첫 문장) 교육은 지식이라는 나무의 줄기(공통 핵심)에 집중해야 한다. → **A'(꾸미기)** 같은 용어를 교과 전반에 쓰면 학생이 과목을 연결한다 — 글쓰기에서도 미술에서도 '추상화'라 부르면 경계를 넘는다. 첫 문장을 나머지가 되풀이한다. **주제 = 교과 통합엔 공통 언어가 필요하다.**

S → G · 순방향·모아서

2024 고2 · 정답률 48%

"Empathy is frequently listed as one of the most desired skills..."

S(사례 쌓기) 어떤 기업은 인지적 공감을, 다른 기업은 정서적 공감을, 컨설턴트는 시장 조사를, 디자이너는 다양한 집단의 필요를 말한다. → **G(종합)** 사례들의 공통점 = 공감이 비즈니스에서 **저마다 다르게 해석**된다. 사례 하나(시장 조사)만 담은 선택지는 범위가 좁아 탈락.

B → A · 역방향·다른 말

2023 고2 · 정답률 52%

"It's remarkable that positive fantasies help us relax..."

B(통념) 긍정적 상상은 우리를 이완시킨다 — 쉬고 싶으면 즐거운 미래를 상상하라. ↓ **But** 소망을 이루는 게 목표라면? **A(주제, not B)** 낙관적 상상은 실행에 필요한 동력을 깎아먹는다. 앞의 통념(이완이 좋다)을 주제로 고르면 정확히 반대를 고른 것.

💡 **한 눈에** — 순방향이면 첫 문장·마지막 결론을, 역방향이면 반전 뒤를 잡는다. 나머지 문장은 대체로 그것을 꾸미거나 뒤집으며 중심축을 지킨다.

무엇을 묻는가 · 두 번째 장

같은 A, 네 개의 질문

A를 잡았다면 절반은 끝났다. 남은 절반은, 문제가 그 A를 **어떤 각도로 되묻는지** 아는 것이다. 같은 주제라도 각도가 다르면 정답의 '모양'이 달라진다.

주제 · 제목

23 · 24번

주제는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가"를 묻는다. 정답은 **소재에 필자의 초점을 얹은 명사구**다. 소재만 담으면 아무 글에나 맞을 만큼 넓고(**범위 넓음**), 사례 하나만 담으면 글 전체를 못 덮는다(**범위 좁음**). 그 사이, 딱 맞는 크기가 정답이다.

제목은 그 주제를 **표제로 압축**한 것. 비유·함축·의문형이 허용되고 짧고 강렬하다. 대신 반드시 글 **전체**를 덮어야 한다. 본문의 인상적인 표현을 그대로 옮긴 선택지가 가장 달콤한 함정 — 눈엔 익지만 대개 한 장면만 담는다.

'공감' 글 → 주제 "비즈니스에서 공감의 서로 다른 해석" / 제목이라면 *One Word, Many Meanings* 같은 압축.

요지

22번

요지는 "그래서 필자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주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필자의 판단**이 들어간다. '무엇에 대한가'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요지는 맞는 말이 아니라 하려는 말이다**. 세부 사실이 옳더라도 필자의 핵심 판단이 아니면 오답.

긍정적 상상 글 → 주제는 '상상과 실행의 관계', 요지는 "낙관적 상상은 실행 동력을 약화시킨다".

주장

20번

주장은 "그래서 필자가 **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다. 필자의 의견이 *should·must·need*나 명령으로 직접 표출되고, 정답도 우리말 **당위문**('~해야 한다')이다. 함정은 **초점이 살짝 어긋난 당위문** — 글은 '평가 요소'의 명확성을 말하는데 '목표'의 명확성을 담은 선택지처럼. 역방향 글에선 **통념(반박 대상)**을 **주장으로** 착각하기 쉽다.

조직 신뢰 글 → 주장 "조직의 신뢰를 위해 평가 요소가 명확해야 한다".

무엇을 묻는가 · 오답과 루틴

오답의 다섯 얼굴, 그리고 세 걸음

오답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출제자는 A의 범위를 비틀고, 통념을 주제로 내세우고, 초점을 옆으로 밀고, 탄소재를 섞는다. 이 다섯 얼굴에 이름표를 붙여 두면, 해설을 읽을 때도 스스로 풀 때도 오답이 먼저 걸러진다.

오답의 다섯 얼굴 — 낙인

- 범위 넓음** 소재만 담아 아무 글에나 맞을 만큼 넓다
- 범위 좁음** 사례·한 장면만 담아 글 전체를 못 덮는다
- 뒤집힌 통념** 역방향 글에서 반전 앞의 통념(B)을 주제로 담았다
- 초점 어긋남** 소재는 맞지만 필자의 초점이 옆으로 빗나갔다
- 탄소재** 본문 단어를 재활용했을 뿐 관계가 없다

풀이 루틴 — 세 걸음이면 끝난다

- 1 흐름 판정** — 순방향인가 역방향인가,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역접·종합 신호·예시에 표시를 남긴다.
- 2 A 확정** — 순방향이면 첫 문장·마지막 결론을, 역방향이면 **반전 뒤**를 주제(A)로 잡는다.
- 3 유형 각도로 변환** — 주제=명사구, 제목=함축 표제, 요지=한 문장 판단, 주장=당위문. A의 바꿔쓰기를 고르고, 다섯 낙인으로 나머지를 지운다.

흐름으로 A를 잡고, 각도로 A를 바꿔 말하고, 낙인으로 나머지를 지운다. 이것이 대의파악의 전부다. 그리고 이것이, 빈순삽함으로 가는 문(門)이다.

대의파악 1 2022.03 고2 23번 정답률 45% 대의파악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dividual human beings differ from one another physically in a multitude of visible and invisible ways. If races — as most people define them — are real biological entities, then people of African ancestry would share a wide variety of traits while people of European ancestry would share a wide variety of different traits. But once we add traits that are less visible than skin coloration, hair texture, and the like, we find that the people we identify as “the same race” are less and less like one another and more and more like people we identify as “different races.” Add to this point that the physical features used to identify a person as a representative of some race (e.g. skin coloration) are continuously variable, so that one cannot say where “brown skin” becomes “white skin.” Although the physical differences themselves are real, the way we use physical differences to classify people into discrete races is a cultural construction. * entity: 실체 ** discrete: 별개의

- ① causes of physical variations among different races
- ②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various races
- ③ social policies to overcome racism
- ④ importance of environmental factors in evolution
- ⑤ misconception about race as a biological construct

대의파악 2 2023.03 고1 23번 정답률 50% 대의파악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s th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of countries got better, wage levels and working conditions improved. Gradually people were given more time off. At the same time, forms of transport improved and it became faster and cheaper to get to places. England's industrial revolution led to many of these changes. Railways, in the nineteenth century, opened up now famous seaside resorts such as Blackpool and Brighton. With the railways came many large hotels. In Canada, for example, the new coast-to-coast railway system made possible the building of such famous hotels as Banff Springs and Chateau Lake Louise in the Rockies. Later, the arrival of air transport opened up more of the world and led to tourism growth.

- ① factors that caused tourism expansion
- ② discomfort at a popular tourist destination
- ③ importance of tourism in society and economy
- ④ negative impacts of tourism on the environment
- ⑤ various types of tourism and their characteristics

대의파악 3 2019.06 고1 22번 정답률 52% 대의파악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Certainly praise is critical to a child's sense of self-esteem, but when given too often for too little, it kills the impact of real praise when it is called for. Everyone needs to know they are valued and appreciated, and praise is one way of expressing such feelings—but only after something praiseworthy has been accomplished. Awards are supposed to be rewards—reactions to positive actions, honors for doing something well! The ever-present danger in handing out such honors too lightly is that children may come to depend on them and do only those things that they know will result in prizes. If they are not sure they can do well enough to earn merit badges, or if gifts are not guaranteed, they may avoid certain activities.

- ① 올바른 습관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다.
- ② 칭찬은 아이의 감성 발달에 필수적이다.
- ③ 아이에게 칭찬을 남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④ 물질적 보상은 학습 동기 부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⑤ 아이에게 감정 표현의 기회를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

대의파악 4 2022.09 고2 24번 정답률 54% 대의파악 · [3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From the earliest times, healthcare services have been recognized to have two equal aspects, namely clinical care and public healthcare. In classical Greek mythology, the god of medicine, Asklepios, had two daughters, Hygiea and Panacea. The former was the goddess of preventive health and wellness, or hygiene, and the latter the goddess of treatment and curing. In modern times, the societal ascendancy of medical professionalism has caused treatment of sick patients to overshadow those preventive healthcare services provided by the less heroic figures of sanitary engineers, biologists, and governmental public health officers. Nevertheless, the quality of health that human populations enjoy is attributable less to surgical dexterity, innovative pharmaceutical products, and bioengineered devices than to the availability of public sanitation, sewage management, and services which control the pollution of the air, drinking water, urban noise, and food for human consumption. The human right to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depends on public healthcare services no less than on the skills and equipment of doctors and hospitals. ** dexterity:

기민함 * ascendancy: 우세

- ① Public Healthcare: A Co-Star, Not a Supporting Actor
- ②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Medicine and Surgery
- ③ Clinical Care Controversies: What You Don't Know
- ④ The Massive Similarities Between Different Mythologies
- ⑤ Initiatives Opening up Health Innovation Around the World

대의파악 5 2023.06 고1 22번 정답률 58% 대의파악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promise of a computerized society, we were told, was that it would pass to machines all of the repetitive drudgery of work, allowing us humans to pursue higher purposes and to have more leisure time. It didn't work out this way. Instead of more time, most of us have less. Companies large and small have off-loaded work onto the backs of consumers. Things that used to be done for us, as part of the value-added service of working with a company, we are now expected to do ourselves. With air travel, we're now expected to complete our own reservations and check-in, jobs that used to be done by airline employees or travel agents. At the grocery store, we're expected to bag our own groceries and, in some supermarkets, to scan our own purchases. * drudgery: 고된 일

- ① 컴퓨터 기반 사회에서는 여가 시간이 더 늘어난다.
- ② 회사 업무의 전산화는 업무 능률을 향상시킨다.
- ③ 컴퓨터화된 사회에서 소비자는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 ④ 온라인 거래가 모든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 ⑤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대의파악 6 2019.11 고1 20번 정답률 62% 대의파악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 tend to go long periods of time without reaching out to the people we know. Then, we suddenly take notice of the distance that has formed and we scramble to make repairs. We call people we haven't spoken to in ages, hoping that one small effort will erase the months and years of distance we've created. However, this rarely works: relationships aren't kept up with big one-time fixes. They're kept up with regular maintenance, like a car. In our relationships, we have to make sure that not too much time goes by between oil changes, so to speak. This isn't to say that you shouldn't bother calling someone just because it's been a while since you've spoken; just that it's more ideal not to let yourself fall out of touch in the first place. Consistency always brings better results.

- ①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 ② 사교성을 기르려면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 ③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한다.
- ④ 인간관계를 지속하려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대의파악 7 2019.06 고2 23번 정답률 51% 대의파악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this world, being smart or competent isn't enough. People sometimes don't recognize talent when they see it. Their vision is clouded by the first impression we give and that can lose us the job we want, or the relationship we want. The way we present ourselves can speak more eloquently of the skills we bring to the table, if we actively cultivate that presentation. Nobody likes to be crossed off the list before being given the opportunity to show others who they are. Being able to tell your story from the moment you meet other people is a skill that must be actively cultivated, in order to send the message that you're someone to be considered and the right person for the position. For that reason, it's important that we all learn how to say the appropriate things in the right way and to present ourselves in a way that appeals to other people—tailoring a great first impression. *eloquently: 설득력 있게

- ① difficulty of presenting yourself in public
- ② risks of judging others based on first impressions
- ③ factors keeping you from making great impressions
- ④ strategies that help improve your presentation skills
- ⑤ necessity of developing the way you show yourself

대의파악 8 2023.11 고2 24번 정답률 53% 대의파악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response to human-like care robots, critics might charge that human-robot interactions create moral hazards for dementia patients. Even if deception is sometimes allowed when it serves worthy goals, should it be allowed for vulnerable users? Just as children on the autism spectrum with robot companions might be easily fooled into thinking of robots as friends, older adults with cognitive deficits might be. According to Alexis Elder, a professor at UMD, robots are false friends, inferior to true friendship. Reasoning along similar lines, John Sullins, a professor at Sonoma State University, holds that robots should “remain iconic or cartoonish so that they are easily distinguished as synthetic even by unsophisticated users.” At least then no one is fooled. Making robots clearly fake also avoids the so-called “uncanny valley,” where robots are perceived as scary because they so closely resemble us, but not quite. Other critics of robot deception argue that when care recipients are deceived into thinking that robots care, this crosses a line and violates human dignity. * dementia: 치매 ** autism: 자폐성

- ①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Human Dignity
- ② Robots Can't Surpass Human Beings in Nursing Jobs
- ③ Why Robots for Vulnerable People Should Look Like Robots
- ④ Can Robots Learn Ethical Behavior Through Human Interaction?
- ⑤ Healthcare Robots: Opening the Era of Online Medical Checkups

대의파악 9 2024.03 고2 22번 정답률 53% 대의파악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We tend to overrate the impact of new technologies in part because older technologies have become absorbed into the furniture of our lives, so as to be almost invisible. Take the baby bottle. Here is a simple implement that has transformed a fundamental human experience for vast numbers of infants and mothers, yet it finds no place in our histories of technology. This technology might be thought of as a classic time-shifting device, as it enables mothers to exercise more control over the timing of feeding. It can also function to save time, as bottle feeding allows for someone else to substitute for the mother's time. Potentially, therefore, it has huge implications for the management of time in everyday life, yet it is entirely overlooked in discussions of high-speed society.

- ① 새로운 기술은 효율적인 시간 관리에 도움이 된다.
- ② 새로운 기술에 비해 기존 기술의 영향력이 간과되고 있다.
- ③ 현대 사회의 새로운 기술이 양육자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 ④ 새로운 기술의 사용을 장려하는 사회적 인식이 요구된다.
- ⑤ 기존 기술의 활용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도움이 된다.

대의파악 10 2020.09 고1 23번 정답률 64% 대의파악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imals as well as humans engage in play activities. In animals, play has long been seen as a way of learning and practicing skills and behaviors that are necessary for future survival. In children, too, play has important functions during development. From its earliest beginnings in infancy, play is a way in which children learn about the world and their place in it. Children's play serves as a training ground for developing physical abilities —skills like walking, running, and jumping that are necessary for everyday living. Play also allows children to try out and learn social behaviors and to acquire values and personality traits that will be important in adulthood. For example, they learn how to compete and cooperate with others, how to lead and follow, how to make decisions, and so on.

- ① necessity of trying out creative ideas
- ② roles of play in children's development
- ③ contrasts between human and animal play
- ④ effects of children's physical abilities on play
- ⑤ children's needs at various developmental stages

대의파악 11 2020.11 고1 22번 정답률 66% 대의파악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FOBO, or Fear of a Better Option, is the anxiety that something better will come along, which makes it undesirable to commit to existing choices when making a decision. It's an affliction of abundance that drives you to keep all of your options open and to avoid risks. Rather than assessing your options, choosing one, and moving on with your day, you delay the inevitable. It's not unlike hitting the snooze button on your alarm clock only to pull the covers over your head and fall back asleep. As you probably found out the hard way, if you hit snooze enough times, you'll end up being late and racing for the office, your day and mood ruined. While pressing snooze feels so good at the moment, it ultimately demands a price. * affliction: 고통

- ① 적당한 수준의 불안감은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
- ② 성급한 의사 결정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 ③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 ④ 더 나은 선택을 위해 결정을 미루는 것은 결국 해가 된다.
- 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직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대의파악 12 2019.06 고2 21번 정답률 68% 대의파악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If you are feeling overwhelmed by the amount of responsibility that you have to deal with in your own life or your own home, you are going to have to figure out a way that you can balance out these responsibilities. For example, is there somebody that you can turn to to tell them that you have too much on your plate and you are feeling too overwhelmed by these responsibilities? If you can find somebody and divide up the labor so that you don't feel so overwhelmed by everything that you are doing, all you have to do sometimes is to ask for help and your life will feel that much better. Many times people will surprise you with their willingness to help you out, so never assume that other people don't care about your stress. Let them know honestly how you are feeling and allow yourself some opportunities to avoid responsibility and give yourself a chance to relax.

- ①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완수하라.
- ② 책임지고 할 일이 많을 때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 ③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라.
- ④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 ⑤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라.